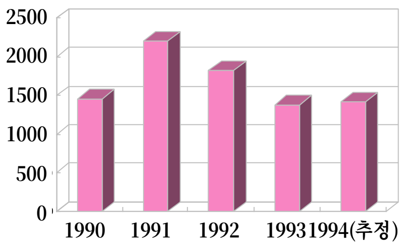
초산비닐용제형 "제자리"

수요산업 회복에도 불구 원자재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

초산비닐용제형 접착제 시장이 후방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94년 초산비닐용제형 접착제의 생산량은 93년대비 3%정도 증가한 1417톤으로 추정되고 있다.

국내 초산비닐용제형 접착제 생산추이
(단위 : M/T, %)



그러나 이 생산량은 91년 생산량의 60% 정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.

95년 시장전망도 불투명해 앞으로 완전한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.

이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용제와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도료 · 접착제산업의 환경이 탈용제화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.

이에따라 초산비닐용제형 접착제 시장도 에멀젼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실제로 90년에는 초산비닐용제형 접착제를 생산하는 기업이 7개에 달했으나 현재는 대양화학, 삼원, 오공산업으로 축소됐다.

또 기업별 시장점유율은 대양화학이 61%로 가장 높고 오공산업이 26%, 삼원이 13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초산비닐용제형 접착제는 초산비닐모노머 (VAM)를 메탄올 등의 용제와 용액중합한 것으로 초기접착력이 있고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또 시중에 시판되는 접착제의 수지분은 50 70%이고 중점도는 300 2000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주로 목재, 플래스틱의 접착 등에 사용되며 특히 건축용 나무벽돌의 접착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초산비닐용제형 접착제의 주원료인 VAM 과 메탄올의 가격은 94년 큰폭으로 상승했으나 접착제가격에는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.

VAM의 경우 94년4월 톤당 500달러에서 3/4분기에는 700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.나타났다.

또 VAM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삼성BP에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995/1/16>